

# 杏雨書屋本 『黃帝內經太素』 卷21, 卷27의 出刊 意義와 그 내용에 대한 考察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sup>1</sup> · 韓醫學古典研究所<sup>2</sup>  
金鍾鉉<sup>1,2</sup> · 白裕相<sup>1,2</sup> · 張祐彰<sup>1,2</sup> · 丁彰炫<sup>1,2\*</sup>

## A study on Haengwuseook(杏雨書屋) Edition 『Hwangjenaegyong-Taeso(黃帝內經太素)』volume 21 and 27

<sup>1</sup>Dep.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sup>2</sup>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Kyunghee University

Kim Jong-hyun<sup>1,2</sup> · Baik You-sang<sup>1,2</sup> · Jang Woo-Chang<sup>1,2</sup>

Jeong Chang-hyun<sup>1,2\*</sup>

『Hwangjenaegyong-taeso(黃帝內經太素)』 is a classic work of Yang Sang-seon(楊上善), which comprises original articles of 『Hwangjenaegyong(黃帝內經)』 along with 『Somun(素問)』, 『Yeongchu(靈樞)』, and 『gapeul(甲乙)』, as a one of the oldest annotated publications. Therefore, its significance lies in that 『Hwangjenaegyong-taeso(黃帝內經太素)』 is a valuable work to reconstruct the original text of 『Hwangjenaegyong(黃帝內經)』 and comprehend its fundamental ideas. The only printed edition of 『Hwangjenaegyong-taeso(黃帝內經太素)』 was photocopied in 1981, and is currently known as ‘Orient Edition’. While ‘Orient Edition’ was referred to as the draft for the latest revised edition, volume 21 and 27 were photocopied from hand-copied edition, not the original. The original publications of ‘Orient Edition’ have been stocked at ‘Haengwuseook(杏雨書屋)’ of Japan and were recently published. Hence,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two original volumes and the former ones has been conducted. Although the most of the differences were trivial, some may have led to distorted interpretation of the text. The errors of the former revised edition fall into a few specific categories, and the most significant ones were errors that were made during the hand-copying procedure. Moreover, there were errors that were made due to the low resolution of the former draft, and simple errors during the publishing. In this work, examples of such cases were presented, and the results were collected.

**Key Words** : Hwangjenaegyong-taeso(黃帝內經太素), Haengwuseook edition(杏雨書屋本)

\* 교신저자 : 丁彰炫,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전화) 02) 961-0337, E-mail : jeongch@khu.ac.kr

접수일(2011년 9월 06일), 수정일(2011년 9월 06일),  
게재확정일(2011년 9월 23일)

## I. 序 論

총 30권으로 구성된 『黃帝內經太素』는 唐初期 楊上善의 著作으로 당시 중국에서 뿐 아니라 8C 이후 일본의학 발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太素』는 『素問』, 『靈樞』, 『甲乙』과 더불어 『黃帝內經』의 原文이 실려 있는 典籍으로서 현존 板本の 형성 연대가 가장 앞선다. 따라서 『內經』 문장의 원형을 복원하는 데 있어 활용가치가 높다. 또한 北宋素問新校正의 林億注에 일부 남아있는 全元起注를 제외하고는 현존하는 최초의 주석으로 『內經』의 본의를 추측함에 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太素』는 成立 이후 遺失, 日本으로의 전래, 仁和寺本の 출현을 거쳐 최근 杏雨書屋本 出刊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 그 모습이 드러났다. 그러나 流傳過程에 불분명한 점이 많으며, 현재 遺失되거나 損傷되어 알아볼 수 없는 부분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古本成立과 流傳過程을 考證하고자 힘썼으며 현존하는 유일한 板本인 仁和寺本の 復原과 校勘에 노력을 집중하였다. 특히 교감분야는 仁和寺本の 순차적 출현에 따라 시기별로 새로운 요구를 수행해야만 했다. 그 결과 通隱堂本으로부터 최근 『黃帝內經太素新校正』까지 여러 校勘書가 출판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기타 內經類 서적들과의 비교 연구, 俗字研究, 楊上善의 思想研究 등 후속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sup>1)</sup> 최신의 1차 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운 사정상 국내의 연구는 주로 楊上善의 註釋과 學說에 집중되었다. 李容範은 楊上善의 三陰三陽學說을 연구한 논문<sup>2)</sup>과 『太素·經脈病解』에 관한 논문<sup>3)</sup>을 발표하였고, 趙學俊 등은 『黃帝內經』註釋의 하나로서 『太素』를 분석한 바<sup>4)</sup> 있다. 최근 李相協은 그의 논문<sup>5)</sup>에서 『太素』의 特徵과 楊上

善의 醫學理論에 대해 논하였다. 『太素』의 板本學의 정보를 기술한 것은 『懸吐黃帝內經講義』<sup>6)</sup>가 거의 유일한데, 內經類書籍의 하나로서 板本の 流傳過程을 정리하였다.

가장 최근에 발견된 仁和寺本은 2007년 日本內經醫學會가 발간한 杏雨書屋本으로, 卷21과 卷27의 眞本이다. 杏雨書屋本 이전의 연구자들은 眞本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C 筆寫本이나 20C 초반에 형성된 模寫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중 후자는 획의 위치와 誤字까지 그대로 옮길 만큼 정교한 것이나 그 역시 완벽하지 못해 이전까지의 교감서들은 불가피한 오류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眞本인 杏雨書屋本을 기준으로 최근까지의 교감서들을 교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08년 左合昌美(사고 마사미)는 大韓韓醫學原典學會에 杏雨書屋本 影印本과 翻字本을 기증하였다. 이로써 국내에서도 1차 자료의 연구가 가능해졌으며, 필자는 杏雨書屋本과 이전 校勘書들의 비교연구를 통해 선행 연구의 오류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에 앞서 문헌연구 결과가 국내에 충분히 보고되지 못했던 점을 보충하고자 지금까지의 성과들을 정리하였다. 선행연구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錢超塵의 『黃帝內經太素研究』와 馬繼興의 『中醫文獻學』 및 기타 자료들을 정리하거나 계통적으로 살펴본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 II. 本 論

### 1. 『黃帝內經太素』의 形成과 流傳

#### 1) 形成과 遺失

##### ① 底本과 著作時期

『太素』의 底本과 著作時期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존재한다. 底本에 대한 주장은 크게 양분된다. 하나는 『漢書·藝文志·諸子略·陰陽家』에 보이는 ‘黃帝泰素二十篇’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이미 존재했던 『黃帝

1) 20C까지의 연구 성과는 錢超塵의 저서인 『黃帝內經太素研究』를 통해 대부분 확인할 수 있다.

2) 李容範, 楊上善의 三陰三陽學說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3) 李容範, 『태소(太素)·경맥병해(經脈病解)』에 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4). 2007.

4) 趙學俊, 尹暢烈. 《內經》의 歷代 註釋家와 註釋書에 관한 연구(I).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7(2). 1999

5) 李相協. 『黃帝內經太素』의 特徵 및 楊上善의 醫學理論에 대한 研究. 동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6) 朴贊國主編. 懸吐黃帝內經講義.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8.

泰素二十篇』을 底本 삼아 楊上善이 30卷으로 改編하고 註釋했다는 說<sup>7)</sup>이다. 반면 다른 하나는 『太素』가 『黃帝泰素二十篇』과 무관하며,<sup>8)</sup> 『素問』 全元起本과 『九卷』을 類編하고 註釋했다고 보는 說<sup>9)</sup>이다. 두 가지 說의 근거를 비교하자면 후자의 그것이 보다 다양하고 설득력이 있으나 단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著作時期 역시도 논란이 되어왔으며 이에 대해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北宋校正醫書局的 『素問』 林億序에 ‘隋楊上善纂而爲太素, 時則有全元起者, 始爲之訓解’라 한 것으로 인해 隋代의 著作이라 여기어져 왔으나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唐初期의 인물로 생각된다. 楊上善에 대한 언급이 『隋志』가 아닌 『新唐書』와 『舊唐書』에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본문에 보이는 諱字가 唐人의 것과 같기 때문이다. 또한 본문 중에 ‘靈蘭之室, 黃帝藏書之府, 今之蘭台, 故名者也.’라 한 것이 보이는데, 황실 藏書庫의 이름을 ‘秘書省’에서 ‘蘭台’로 고친 것은 唐高宗龍期二年(662)이고 咸亨元年(670)에 다시 원래대로 고쳤으므로 著作時期는 662년에서 670년 사이로 추정 가능하다.<sup>10)</sup> 이처럼 『太素』는

늦어도 唐初期 이전에 형성되었으며 현존 판본인 仁和寺本 역시 『素問』, 『靈樞』의 현존 板本들 보다 형성 시대가 앞선다. 알려졌듯이 현재 통용되는 『素問』은 北宋校正局의 校正을 거친 王冰本이 底本이며, 『靈樞』는 高麗가 南宋에 전달하여 형성된 史崧本이 底本이다.<sup>11)</sup> 『太素』는 이들에 비해 형성 시기가 앞선 것으로 古代 『黃帝內經』의 原型에 보다 가깝다는 면에서 研究 가치가 높다.

## ② 遺失

宋代 이후 『太素』는 자취를 감추었는데 그 과정과 시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아있다. 『政和本草·卷30』에 실린 北宋校正醫書局 校正目錄에는 『太素』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정하고 발간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sup>12)</sup> 반면 新校正에서 발간한 『素問』과 『甲乙經』 林億注에는 『太素』를 인용한 문장이 있어 어떠한 이유로 校正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의문으로 남아있다. 林億이 인용한 『太素』文章의 特記할만한 점은 현존하는 유일한 판본인 仁和寺本과 다른 부분이 여럿 있다는 것이다. 『太素』의 다른 板本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日本 내 流轉過程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후 南宋의 문헌에는 『太素』가 3권만 전했던 것으로 되어있으며 그 이후 기록에는 전하지 않는다.<sup>13)</sup>

7) 근거는 다음과 같다. 『太素』의 楊注에 보이는 ‘古本’, ‘有本’, ‘太素經’과 같은 표현이 楊上善 이전의 底本을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첫 번째 근거이고, 『太素』의 30권 중 ‘九鍼之一’, ‘九鍼之二’와 같이 여러 권으로 나뉜 것들을 합하면 20권으로 정리된다는 것이 그 두 번째이다. (馬繼興, 中醫文獻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85.)

8)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黃帝泰素』가 언급된 『漢書·藝文志』의 분류에 따르면 『黃帝泰素二十篇』은 「諸子略陰陽家」에 『黃帝內經』은 「方技略醫經家」에 속한다. 따라서 『黃帝內經』과 유사한 『太素』는 『黃帝泰素』와 다른 내용이다. ②『漢書·藝文志』 班固注에 ‘六國時韓諸公子所作’이라 하였는데 본문에 쓰인 글자들의 用例를 볼 때 西漢이전의 책으로 볼 수 없다. ③앞서 말한 ‘古本’, ‘有本’, ‘太素經’은 ‘難經’, ‘甲乙經’ 등을 지칭하는 것이다. (錢超塵, 黃帝內經太素研究,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p.75-87.)

9)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太素』에 실린 『素問』을 살펴보면 합이 74篇으로 運氣七篇을 더하면 81篇이다. ② 『太素』 역시 全元起本(『素問訓解』)과 같이 運氣七篇이 없다. ③현재 後人이 補入한 것으로 생각되는 「刺法論」과 「本病論」이 『素問訓解』와 『太素』에 모두 없다. ④『九卷』의 경우 『太素』에 실린 『靈樞』의 문장이 총 81篇으로 같다. ⑤『靈樞』와 『太素』에 실린 篇의 標題가 같다. ⑥ 『靈樞』와 『太素』에 쓰인 文章의 結句가 거의 일치한다. (錢超塵, 黃帝內經太素研究,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p.88-129.)

10) 기타의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新唐書』와 『舊唐書』에는 楊上善의 이름과 그 著作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 『老子指略論』에는 ‘注, 太子文學’이라 하였는데 『太素』의 매 卷 머리에 ‘通直郎守太子文學臣楊上善奉勅撰注’라는 말이 쓰여 있어 이와 일치한다. 또한 ‘勅’字를 ‘皇帝의 命’이라는 뜻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唐高宗顯慶(656-660) 이후이다. ②『太素』에서 ‘丙’을 ‘景’으로 諱한 것은 唐人의 관습이고, ‘治’를 諱하여 ‘理’나 ‘療’로 諱했는데, 唐高宗의 이름(李治) 때문이다. ③『太素』에서는 老子를 ‘玄元皇帝’라 칭했는데, 이처럼 追尊한 것은 唐高宗乾封元年二月的 일이다. ④唐末 杜光庭의 『道德直經廣聖義序』에서 ‘太子司議郎楊上善, 高宗時人, 作道德集注直言二十卷’이라 하였다. (錢超塵, 李雲,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pp.1-5)

11) 『黃帝內經』 板本の 흐름은 馬繼興의 『中醫文獻學』(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을 통해 알 수 있으며, 朴贊國主編 『懸吐黃帝內經講義』(경희대학교출판국, 1998)의 초반부에도 정리되어있다. 국내 판본에 관한 연구 역시 진행 중이며 최근 자료인 ‘乙亥字本『黃帝內經素問』에 대한 조사 연구’(白裕相, 대한한의학회지, 24(3), 2011)를 통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12) 馬繼興, 中醫文獻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85

13) 錢超塵, 黃帝內經太素研究,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p3-4.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新校正 당시 『太素』를 인용하였으면서 발간하지 않은 이유를 온전한 板本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 2. 『黃帝內經太素』 仁和寺本の 出現과 歷代板本の 成立

### 1) 日本傳來와 流傳

『太素』는 南宋 이후 中國에서 사라졌지만 사라지기 전 日本으로 건너가 현재에 전해지게 되었다. 日本으로 전해진 시기는 8C초에서 중반 사이로 추정되며<sup>14)</sup> 753년 唐이 日本에 파견한 鑿眞大和尚이 가져갔다는 說과 日本이 파견한 유학생(粟田眞人 혹은 吉備眞備)이 가져왔다는 說이 있다.<sup>15)</sup> 日本으로 전해진 『太素』는 丹波家門의 筆寫를 거쳐 전해졌는데 이것이 현재의 仁和寺本이다. 仁和寺本 『太素』의 每卷 末尾에는 筆寫한 날짜를 기록했는데, 이것으로 丹波憲基가 1151-1158년에 필사한 것을 丹波賴基가 1166-1168년에 다시 베긴 것이 현재의 板本임을 알 수 있다. 丹波家門에서 필사한 『太素』의 祖本은 蜂田藥師船人本으로 생각된다. 蜂田藥師船人本에 대한 기록은 卷17의 끝에서 볼 수 있다.<sup>16)</sup> 蜂田藥師船人本은 770년에서 805년 사이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sup>17)</sup> 이는 『太素』가 日本으로 전해졌을 것으로 생각되는 시기와 멀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仁和寺本은 日本으로 전해질 당시 『太素』의 원형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卷22에는 추가로 “正應二年十二月二日, 以累朝相傳之本讀合了, 施藥院使丹波長光.”이라 쓰여 있는데 1290년에 丹波長光이 앞선 판본들을 모아 정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仁和

寺本은 日本 京都에 위치한 仁和寺에 보관되었으나 이후 世間の 관심에서 멀어졌고 日本의 문헌기록에서도 차츰 사라졌다.

### 2) 仁和寺本の 出現過程

사라진 것으로 생각되었던 仁和寺本은 19C에 이르러 재발견되었다. 仁和寺本의 出現은 崇蘭官本으로부터 최근 杏雨書屋本까지 몇 차례에 걸쳐 이어졌으며 그 때마다 校勘과 考證이 이어졌다.

仁和寺本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1820년 福井家에서 刊印한 『黃帝內經太素·卷27』(崇蘭官本) 때문이었다. 仁和寺本은 1788년 仁和寺의 火災로 총 8권(卷1, 卷4, 卷7, 卷16, 卷18, 卷20, 卷21, 卷27)과 나머지의 일부본이 遺失되었는데 이때 사라진 것을 福井家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라졌던 仁和寺本이 다시 나타나자 日本과 中國 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1830년 小島學古는 仁和寺가 소장한 22권과 崇蘭官本(권27)을 筆寫하였다. 이후 小島本의 筆寫가 반복되었고 19C말 中國의 楊守敬, 黃以周 등이 小島本을 메겨 中國으로 들여왔는데 이를 근거로 通隱堂本(1897년)이 刊行되었다. 또 1924년에는 蕭延平이 楊守敬의 模寫本을 底本으로 기타 板本들과 비교하여 校勘本을 刊行하였는데 이것이 蘭陵堂本(蕭延平本)이다. 이는 『黃帝內經太素』 최초의 정밀 校勘本(23권본)으로 현재까지도 『太素』 研究에 있어 유력한 板本으로 이용되고 있다.

1918년 仁和寺에서는 유실된 부분을 메우기 위해 福井家에 사람을 파견해 筆寫하였는데 이때 卷21의 완전한 卷子와 卷3의 맨 앞 3장, 卷12와 卷14의 각 1장씩을 추가로 발견하였다.<sup>18)</sup> 또한 1936년 일본 정부가 주관한 문화재 관리 사업의 하나로 仁和寺本을 조사하던 중 卷16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福井家와 仁和寺에서의 발견을 토대로 1971년에는 蕭延平本(23권)에 卷16, 卷21, 卷22를 새로 더한 盛文堂本(25권본)이 發刊되었다. 1980년 中國中醫研究院鍼灸研究所에서 盛文堂本의 추가한 부분(卷16, 卷21, 卷22)을 影印해 缺卷復刻卷을 내부 발간하였다.

14) 日本天皇이 701년 내린 칙령에는 『黃帝內經太素』와 관련된 내용이 없으나 757년 칙령에서는 醫生에게 『太素』를 익히도록 하였다. (錢超塵, 黃帝內經太素研究,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138.)

15) 錢超塵, 黃帝內經太素研究,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p139-143.

16) “仁安二年十二月八日, 以同本書之移點校合了, 丹波賴基之本云, 保元元年潤九月廿六日, 以家本移點校合了. 蜂田藥師船人本云. 憲基.”라 하였다.

17) 錢超塵, 黃帝內經太素研究,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143.

18) 이 때 筆寫한 것이 大政模寫本이며, 당시 福井家에서 소장했던 卷21과 卷27이 현재의 杏雨書屋本일 것으로 생각된다.

1982년 日本의 東洋醫學研究會는 東洋醫學善本叢書의 하나로 『黃帝內經太素』 仁和寺本을 影印하였다.(오리엔트本, 25권본) 이는 仁和寺本의 眞本을 影印한 최초의 板本으로 이후로는 筆寫本이나 校勘本이 아닌 眞本을 통한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錢超塵, 李雲, 左合昌美 등이 仁和寺本影印本을 대상으로 校勘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黃帝內經太素新校正(2006년)』과 『黃帝內經太素新新校正(2009년)』 등이 出版되었다.

2007년 日本內經醫學會는 杏雨書屋이 소장 중인 『黃帝內經太素』 仁和寺本 卷21, 卷27의 影印本과 翻字本을 출간하였다. 이는 卷21, 卷27에 한해 大政模寫本을 影印한 오리엔트本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바야흐로 지금까지 발견된 仁和寺本 25권을 모두 影印本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 3) 歷代板本の 成立과 特徵

仁和寺本의 발견과 함께 잇달아 발표된 교감본들은 주로는 새로 발견된 卷들을 조사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나 기존 校勘書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작업 또한 병행되었다. 본 단락에서는 각 교감서들의 내용과 특징을 통해 각각 어떠한 환경과 요구로써 형성되었는지 『黃帝內經太素』 교감연구의 흐름을 살피고자 한다. 본 내용은 각 판본의 범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 ① 通隱堂本(袁昶本)

通隱堂本은 1897년 袁昶의 주관 아래 발간되었으며 漸西村舍本이라고도 한다. 楊守敬이 日本에서 들여온 唐人卷子鈔本影寫卷(小島本의 筆寫本)이 底本으로 총 23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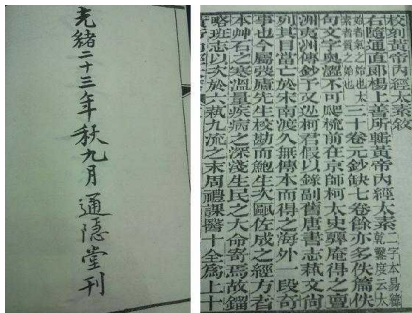


그림 1. 通隱堂本 北京大學影印本(1994)

通隱堂本은 內經類서적과의 비교를 시도한 최초의 판본으로 經文의 경우 주로 『素問』과 대조하여 底本의 빈 곳을 補入하거나 수정했다. 또한 林億新校正素問에 인용된 『太素』의 문장중 보이지 않는 것을 모아 부록하였다. 그러나 『靈樞』에 대해서는 그보다 일찍 발견된 『太素』가 더 믿을 만하다고 여기어 교정한 부분이 적고 『甲乙』은 일부 참고만 하였다. 현재의 『素問』 역시 『太素』보다 後代板本임을 생각해 볼 때 나머지 둘과의 비교가 소홀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楊注의 경우는 고찰을 통해 손상된 부분을 채워 넣었다. 기타로 俗字를 모두 正字로 바꾸었고, 諱字의 경우 『素問』에 의거하여 고쳤으며, 남아 있는 卷들에 근거하여 목차를 만들었다.

通隱堂本은 中國에서 발간된 최초의 『太素』 板本으로 당시 『太素』연구의 활성화를 추동했다. 또한 『太素』 板本研究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인 內經類서적과의 비교 연구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디 底本 자체가 수차례 筆寫를 거친 것이므로 많은 오류가 있으며, 또한 교정한 위치와 교정근거에 대해 표식이나 주석을 남기지 않아 교감서로서는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 ② 蘭陵堂本(蕭延平本)

通隱堂本 이후 『太素』연구가 활성화 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정밀한 교감본을 요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1924년 蕭延平本이 발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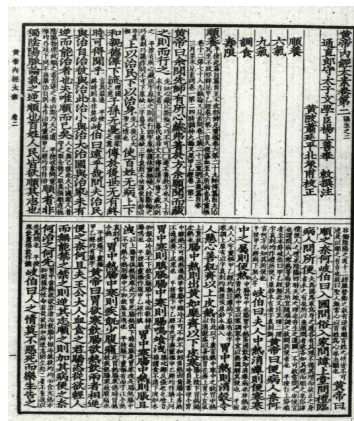


그림 2. 蕭延平本 人民衛生出版社影印本(1955)

蕭延平本은 총 23권으로 底本은 通隱堂本과 같으나 스스로 '別本'과 '校本'이라 칭한 두개의 板本을 참조하였다. 교감사항에 대한 세밀한 기록은 앞선 것과 대비되는 장점이다. 楊注의 뒤에 1격을 두고 '平按'이라 한 뒤 교감 내용을 기록하였는데 글자에 대한 교감사항을 '某字某書作某', '據某書補入'과 같이 세세히 기록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內經類서적과의 비교를 본격화 했는데 『素問』, 『靈樞』, 『甲乙』를 모두 상세히 對比하여 교감했으며, 매 篇의 서두에 이들이 어느 篇에 실려 있는지 기록했다. 楊注의 경우 알 수 없는 闕字는 空格을 가늠하여 그대로 남기고, 經文에 근거할 것이 있으면 補入한 후 校註에 기록했으며, 혹 분명한 근거는 없으나 추측되는 의견이 있으면 校註에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타 서적에 인용된 楊注를 발췌하여 비교하였다. 北宋校正醫書局에서 校正한 『素問』, 『靈樞』, 『甲乙』, 그리고 日本 『醫心方』에 보이는 楊注를 비교하여 다른 것은 校註에 기록하였고, 현재 발견된 『太素』에 보이지 않는 것은 뒤에 補入하였다. 假借字, 俗字, 諱字 역시 校正하고 註釋을 남겼다.

이처럼 蕭延平本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이전 板本을 크게 보완했다. 通隱堂本에 비해 성립시기가 늦지만 내용이 정밀하므로 현재의 연구들도 대부분 善本으로 이용하였으며, 蕭延平의 교감형식을 따르고 있다. 다만 이 역시 거듭 筆寫된 底本을 사용하여 불가피한 오류를 안고 있으며 새로 발견된 卷16, 卷21 등을 수록하지 못하였다. 이는 1982년 오리엔트본과 2007년 杏雨書屋本의 影印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모든 교감본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 하겠다.

③ 成文堂本과 缺卷復刻卷



그림 3. 成文堂本(1971)



그림 4. 缺卷復刻卷(1980)

盛文堂本은 1971년 일본 盛文堂에서 蕭延平本에 새로 발견된 卷들을 더해 출간한 것이다. 이 板本의 전반부는 蕭延平本을 그대로 影印하였고 후반부는 卷16, 卷21, 卷22를 刊印하였다. 추가된 卷21과 卷16은 小島本 성립 이후에 새로 발견된 것이며, 卷22는 「九刺」와 「十二刺」부분을 새로 발견된 것에 근거해 수정한 것이다. 研究院鍼灸研究所는 추가된 3권만을 影印하여 『缺卷復刻黃帝內經太素』라는 이름으로 내부 發刊하였다. 盛文堂本은 최초의 25권본으로 현재까지 발견된 모두가 수록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새로 더해진 3권 부분은 교감에 관한 설명이 없고 해당부분의 校釋 역시 없어 부족함이 많다.

④ 日本東洋醫學研究會 仁和寺古抄本影印本(오리엔트본)

1981년 日本東洋醫學研究會는 『黃帝內經太素』仁和寺本을 影印하였다. 오리엔트본은 仁和寺에서 보관 중이던 25권을 影印한 것이다. 影印본이 出刊되자 『太素』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때까지 筆寫한 底本을 사용해 발생한 오류의 상당 부분이 眞本을 통해 교정 가능해졌다. 옮겨 적는 과정의 단순 오류 뿐 아니라 丹波家門의 筆寫 당시 사용되었던 日本의 俗字나 異體字 등을 이해하지 못해 초래된 오류 역시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筆寫本에는 없는 初校者(인화사본 성립 무렵 丹波長光의 기록이 아닐지 의심되는)의 기록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손상된 글자를 추정하거나 글자의 당시 音韻을 알아내는 데에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이처럼 오리엔트본을 통해 새로운 정보들이 제공됨에 따라 校勘, 半切法, 俗字, 古代日本漢字 등 다방면의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앞서 열거한 여러 판본들은 현재 국내에서도 대부분 찾아볼 수 있다.<sup>19)</sup> 通隱堂本은 경희대학교를 비롯한 8개 대학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sup>20)</sup> 蕭延平本의 경우 국내 大星出版社에서 影印한 것은 8개 한의과대학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으며<sup>21)</sup> 王洪圖, 李雲이 重校한 科學技術文獻出版社(2005년)은 경희대학교와 원광

19) 본 내용 중 각 대학도서관의 소장 내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것임.

20) 경희대학교, 원광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신대학교, 세명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대학교.

21) 경희대학교, 원광대학교, 대전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세명대학교, 동국대학교, 경원대학교.

대학교 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蕭延平本은 『續修四庫全書·子部·醫家類』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盛文堂本은 전국 한의과대학 도서관 중 유일하게 대구한의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오리엔트본의 경우는 國內出版本을 8개 한의과대학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sup>22)</sup>. 앞서 언급한 모든 판본과 더불어 蕭延平本의 人民衛生出版社影印本(1955년), 오리엔트본의 原本, 杏雨書屋本(scan file)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이 소장하고 있다.

### 3. 오리엔트本 성립 이후

#### 1) 『黃帝內經太素新校正』과 『黃帝內經太素新新校正』

과거 이루어진 교감은 모두 筆寫本을 底本으로 삼았으며 당시 발견되지 않은 卷들은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견된 仁和寺本의 全卷을 影印한 오리엔트本이 出刊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蕭延平이 진행했던 것과 같은 새로운 교감작업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06년 錢超塵과 李雲의 『黃帝內經太素新校正』과 2009년 左合昌美의 『黃帝內經太素新新校正』이 발표되었다.

『黃帝內經太素新校正』(이하 『新校正』이라 한다.)은 2009년 學苑出版社에서 出版되었으며 오리엔트本을 底本으로 하였다. 『新校正』은 형식에 있어 기본적으로 蕭延平本을 따랐다. 《素問》, 《靈樞》, 《甲乙》과 모두 상세히 대조했으며 매 篇의 서두에 각각 어느 篇에 실려 있는지 기록하였다. 또한 《備急千金要方》, 《外臺秘要》, 《醫心方》, 《難經》, 《素問識》, 《素問紹識》 등에 실린 『太素』의 문장과도 비교하였다. 뿐만 아니라 매 구절마다 蕭延平本, 日本模寫本(小曾戶丈夫監修, 永田忠子摹寫), 盛文堂本과 비교하였으며 차이점을 모두 각주로 기록하여 선대의 연구결과를 포괄하였다.

『新校正』의 특징과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 교감에 있어 仁和寺原鈔本影印本의 原型을 유지하였다. 經文과 楊注를 모두 원형대로 기록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각주로 처리

하였다. 仁和寺本을 살펴보면 ‘之’, ‘也’ 와 같이 불필요하게 반복되어 쓰이거나 명백한 오류로 보이는 글자들이 있는데 앞선 교감서들이 이를 생략했던 것과는 달리 모두 그대로 기록하였다. 또한 仁和寺本 筆寫 당시의 교정으로 보이는 표식과 내용을 모두 기록하였으며 현재 쓰이지 않는 글자까지도 모두 彫版하여 원형을 최대한 유지코자 하였다. 둘째, 『太素』와 관련한 이전까지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보다 정교한 교감이 이루어졌다. 저자인 錢鈔塵은 이미 『太素』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를 집대성하여 『黃帝內經太素研究(1997)』를 출간한 바 있는데 이러한 연구 성과가 교감 작업에도 녹아있다. 俗字, 異體字, 通假字, 避諱字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이용해 글자마다 정밀하게 교감하였으며 『說文解字注』, 『玉海』, 『廣韻』 등을 인용하여 근거로 제시하였다. 또한 반복되는 것들은 부록으로 「俗字表」를 두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音韻 연구의 결과 역시 교감에 반영되었다. 『內經』 문장 중 韻이 맞지 않는 것들을 『太素』로써 교정하여 각 부분에 각주로 기록하였다.

2009년 日本內經醫學會에서 출판한 『黃帝內經太素新新校正』(이하 『新新校正』이라 한다.)은 『新校正』을 보완한 것이다. 『新校正』과 비교해 異論이 없는 경우 따로 표시하지 않았으며 바로 잡을 부분만 각주로 기록하였다. 추가로 현재 식별할 수 없는 글자를 多紀元堅의 《素問參楊》<sup>23)</sup>, 喜多寸直寬의 《黃帝內經太素九卷經纂錄》<sup>24)</sup>에 의거하여 보충한 것이 있으며<sup>25)</sup> 또한 뒤이어 논의할 杏雨書屋本 卷21과 卷27에 대해서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생각된다.<sup>26)</sup> 『新新校正』의 경우 비록 직접적 언급은 없으나 원본에 대해 비교적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학회의 교감본인 만큼 손상된 글자와 日本式漢字의 식별에 있어 제시한 의견은 신뢰할 만하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新校正』은 仁和寺本影印本을

23) 1836년. 최초로 『素問』과 『太素』를 대조하는 연구를 진행한 책.

24) 1848~1850. 초기 模寫本.

25) 仁和寺本 발견초기에는 原本의 상태가 지금보다 좋았을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左合昌美校正. 黃帝內經太素新新校正. 日本內經醫學會, 2010. 凡例.)

26)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교감부분 중 杏雨書屋本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부 참고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22) 경희대학교, 원광대학교, 대전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경원대학교, 상지대학교, 동의대학교, 동신대학교

바탕으로 앞선 교감들의 한계점들을 개선하였으며, 또한 影印本 出刊으로 촉발된 다양한 성과들을 포함하였다. 杏雨書屋本과 같이 부분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전의 모든 교감 연구 결과를 포괄한 『黃帝內經太素』의 標準校勘書라 할만하다. 따라서 『太素』研究에 있어 『新校正』을 바탕으로 『新新校正』을 참고한다면 큰 오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杏雨書屋本(卷21, 卷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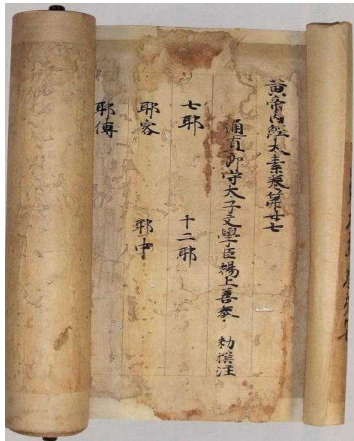


그림 5. 杏雨書屋本

2007년 日本內經醫學會에서는 『杏雨書屋藏古卷子本太素』(杏雨書屋本) 卷21과 卷27을 出刊하였다. 杏雨書屋本이 출간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81년 오리엔트本 출간 당시 影印한 대상은 仁和寺가 所藏하고 있었던 25권이었는데 그중 卷21과 卷27은 福井家가 가지고 있던 것을 筆寫해간 것(大政摹寫本이라 通稱한다)이다.<sup>27)</sup> 오리엔트本을 영인할 당시 진본인 杏雨書屋本을 사용할 것을 희망하였으나 杏雨書屋의 사정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였고 두 권에 한해 模寫本을 사용했다.<sup>28)</sup> 福井家가 가지고 있던 두 권은 1981년

27) 杏雨書屋本の 解題에는 “오리엔트本에 수록된 卷21과 卷27이 1918년 교토황국대학의 吉況義則의 지시로 模寫한 것”이라 하였고, 左合昌美의 논문에는 “仁和寺에서 사람을 派遣하여 民間에 流出된 卷子와 斷簡을 臨摹한 것”이라 하였다. 한 가지 사실을 서술한 것으로 생각되나 확실치 않다.

28) 左合昌美, 金恩暇. 杏雨書屋藏古卷子本『太素』卷二十一 및 卷二十七의 繁字.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1(4). 2008. pp.197-198.

武田長兵衛氏에게 양도되어 현재 杏雨書屋<sup>29)</sup>에 보관 중이다. 日本內經醫學會가 發刊한 杏雨書屋本은 오리엔트本 出刊 당시 제외된 仁和寺本 卷21과 卷27의 眞本을 影印한 것이다.

## 4. 杏雨書屋本(卷21,27)과 이전 板本の 비교

杏雨書屋本의 존재가 국내에 알려진 것은 2008 大韓韓醫學原典學會 國際學術大會 당시 左合昌美가 그의 논문 ‘杏雨書屋古卷子本《太素》卷二十一 및 二十七의 繁字’를 발표하면서이다. 日本內經醫學會 소속의 左合昌美는 논문 발표와 함께 杏雨書屋本(卷21, 卷27) 影印本과 翻字本을 大韓韓醫學原典學會에 기증하였다. 影印本은 높은 해상도의 컬러판이며, 翻字本은 이를 현재 사용하는 글자로 옮기고 이전 校勘本과의 대비 사항과 글자 판독 내용을 註釋한 것이다. 이처럼 양질의 1차 자료가 입수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杏雨書屋本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종합해보면 『黃帝內經太素』 仁和寺本의 眞本은 오리엔트本의 23권과 杏雨書屋本 2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가장 신뢰할만한 교감서인 『黃帝內經太素新校正』은 杏雨書屋本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卷21과 卷27에 대해 추가적인 교감작업이 필요하다. 2008년 左合昌美가 발표한 논문은 그러한 작업의 일부로써 杏雨書屋本과 이전 교감서들을 비교하여<sup>30)</sup>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오류라 함은 선행연구들의 底本이 가지고 있던 문제, 즉 筆寫의 부정확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著者는 주로 字形 비교를 통해 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논문은 杏雨書屋本의 가치를 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몇몇의 예시만 수록했고, 비교 대상으로 고른 교감본들의 선택이유 등 배경정보가 적어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太素』가 의학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감연구가 그러했던 것처럼, 각 글자의 형태에만 주목한 것 역시 부족하게 느껴졌다.

본 논문은 左合昌美가 발표한 논문과 이전 교감연구 방식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전

29) 杏雨書屋(<http://www.takeda-sci.or.jp>)

30) 缺卷復刻卷, 王洪圖·李雲이 重校한 校勘本, 『黃帝內經太素新校正』 등과 비교하였다.



논문에 언급되지 않은 것들까지 기록하였고 의학적 해석을 보던 교감을 시도하였다. 비교 板本으로는 蕭延平本, 盛文堂本, 『新校正』, 『新新校正』을 사용하였다. 蕭延平本<sup>31)</sup>과 『新校正』은 역대 底本の 두 갈래인 楊守敬의 筆寫本과 오리엔트本을 바탕으로 한 것 중 가장 믿을만하기 때문이다. 蕭延平本에 없는 卷21은 盛文堂本과 대조하였고 『新校正』을 보완한 『新新校正』도 대상에 포함했다. 추가로 경우에 따라 오리엔트本을 대조하였다. 비교 결과를 類型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

1) 오리엔트本에 실린 大政模寫本의 실수로 인한 오류 事例

杏雨書屋本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大政模寫本의 오류이다. 오리엔트本을 저본으로 한 교감서의 경우 模寫本이 저지른 실수를 피할 수 없었으나 眞本の 열람으로 이러한 오류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新新校正』의 경우 대부분 杏雨書屋本과 일치하는데, 眞本에 대한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생각된다. 일치하는 경우는 따로 적지 않았다.

① 「卷21·九鍼要道」 楊注 ‘雜合行之’<sup>32)</sup>



楊注 “五方療病，各不同術，今聖人量其所宜，雜合行之，取十全，故次言之。” 중에 쓰인 ‘合’이 盛文堂本과 『新校正』에는 ‘合’으로 되어있다. 杏雨書屋本의 글자(上)를 관별해 봤을 때 ‘合’이 분명하다. 盛文堂本과 『新校正』 오류는 大政模寫本의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글자(下)가 ‘合’에 가깝게 쓰여 있다. 의미상으로는 두 글자 모두 가능하나 ‘合’이 보다 매끄럽다고 생각된다.

② 「卷21·九鍼要道」 楊注 ‘欲去欲住’<sup>33)</sup>



楊注 “欲去欲住爲行悔也。”에 쓰인 ‘住’가 盛文堂本과 『新校正』에는 ‘作’으로 되어 있다. 杏雨書屋本의 글자(上)는 ‘住’와 ‘作’ 중 어떤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 註釋은 經



文에 쓰인 ‘若行若悔’를 설명한 것으로 ‘去’와 의미가 대비되는 ‘住’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오리엔트本의 글자(下)는 보다 ‘作’에 가깝게 쓰여 있으며 ‘住’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新校正』에 ‘作’이라 하고 어떠한 설명도 남기지 않은 것은 글자를 誤認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③ 「卷21·九鍼要道」 經文 ‘無損不足’<sup>34)</sup>



經文 ‘無實實，無虛虛，無損不足而益有餘，是爲重病，病益甚.’에 쓰인 ‘足’(上)이 盛文堂本과 『新校正』에는 ‘之’로 되어있다. 仁和寺本에 쓰인 ‘足’字(中<sup>35)</sup>)는 ‘口’아래 ‘之’가 있는 형태이다. 그러나 이 글자(上)는 위의 ‘口’ 부분이 손상되어 ‘之’로 誤認하기 쉽다. 오리엔트本(下)에는 손상된 ‘口’부분이 완전히 ‘-’로 되어있는데 『新校正』의 오류는 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④ 「卷21·九鍼要道」 楊注 ‘更致邪氣’<sup>36)</sup>



楊注 ‘不中病，病雖盡去，更致邪氣，爲癰瘍也.’에 쓰인 ‘邪’가 盛文堂本과 『新校正』에는 ‘弗’로 되어있다. 仁和寺本에는 ‘邪’를 모두 ‘耶’로 썼는데 杏雨書屋本의 형태(上)로 볼 때 ‘耶’가 분명하다. 반면 오리엔트本에는 ‘弗’(下)로 되어있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弗’로 보았을 때에는 문장의 의미를 알 수 없는데, 때문에 『新校正』의 脚注에는 “‘弗’字費解，疑爲‘其’字之誤，待考.”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문장은 刺鍼을 할 때 제거되지 못한 邪氣가 다시 이르게 된다는 뜻으로 ‘邪’가 분명하다.

⑤ 「卷21·九鍼要解」 楊注 ‘先知何經有病之微’<sup>37)</sup>

(楊注) “先知何經有病之微，療之處所.”에 쓰인 ‘經’(上)은 그 형태가 모호하다. 盛文堂本에는 ‘涇’라 하였으며 『新校正』에서는 ‘涇’이라 하였다. 이에 대해 『新新校正』과 杏雨書屋 翻字本 脚注에는 모두 좌변이 ‘氵’이고 우변이 ‘冫’이라 하였다. 다른 부분에 쓰인 ‘經’

31) 蕭延平本은 人民衛生出版社影印本(1954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32) (杏雨書屋本 21:13), (新新校正 p283), (新校正 p409)

33) (杏雨書屋本 21:43), (新新校正 p284), (新校正 p411)

34) (杏雨書屋本 21:63), (新新校正 p285), (新校正 p412)

35) 杏雨書屋本 21:92 ‘有餘不足’

36) (杏雨書屋本 21:88), (新新校正 p286), (新校正 p414)

37) (杏雨書屋本 21:98), (新新校正 p287), (新校正 p414)



(中38)과 비교해보면 이 견해가 납득할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오리엔트 본에 쓰인 글자(下)의 左邊은 분명 ‘?’로 보이며, 『新校正』에서는 이를 따랐을 것이다. 이 부분의 經文 ‘惡知其原者, 先知何經之病, 所取之處也.’와의 호응을 고려해 볼 때 ‘經’으로 보는 의견이 타당할 듯하다.

⑥「卷21·諸原所生」楊注 ‘放五藏第三輸’<sup>39)</sup>



楊注 “三焦行原氣, 經營五藏六府, 故三焦者, 原氣之別使也, 行氣, 放五藏第三輸, 故第三輸名原.”에 쓰인 ‘放五藏第三輸’는 『新新校正』 ‘發五藏第三輸’, 『新校正』 ‘故五藏第一輸’, 盛文堂本 ‘故五藏第一輸’로 각각 기록되어있다. 杏雨書屋本の 형태(左)로 파악하기에는 ‘放五藏第三輸’가 분명하다. 이 문장은 三焦에 대한 설명으로, ‘三焦가 五臟의 氣를 세 번째 輸穴에서 내어놓으므로 세 번째 輸穴을 原이라 한다.’는 뜻이다. 의미상 첫 번째 글자는 ‘放’이나

‘發’이 모두 가능하지만 앞뒤 문장의 흐름상 ‘故’는 어색하다. 또한 다섯 번째 글자가 ‘三’이라는 것은 다음 句와의 호응이나 의학적 상식으로 볼 때 의심할 것이 없다. 『新校正』과 盛文堂本에 이러한 오류가 있는 것은 底本の 문제로 추측된다. 오리엔트本(右)에는 ‘放’을 모호하게 模寫하여 ‘故’로 誤認할 수 있으며, ‘三’의 경우 손상된 上2획을 빈 공간으로 남겨두어 오류의 소지가 있었다.

⑦「卷27·十二邪」楊注 ‘火几反’<sup>40)</sup>

楊注 ‘火几反’은 ‘唏’를 풀이한 것이다. 『新校正』에서는 ‘火’를 ‘大’로 보았으나 반절법상 맞지 않으므로 주석에 “‘大’爲‘火’之訛.”라 하였다. 『新校正』이 이러한



오류를 알았음에도 ‘大’로 표기한 것은 오리엔트本의 문제이다. 오리엔트本(下)에는 ‘火’를 ‘大’에 가깝게 模寫하였기 때문이다. 盛文堂本에는 ‘唏, 火几反’로 되어 있는데, 앞에 ‘唏’를 추가한 것은 반절법 풀이가 사용된 일반적인 예를 따른 것이다.

⑧「卷27·邪中」楊注 ‘其經絡血氣貫通’<sup>41)</sup>



이 역시 오리엔트本에 실린 模寫本(下)의 오류이다. 나머지 判本은 모두 ‘貫’이라 하였으나 『新校正』에만 ‘者’로 되어있다. 의미상 ‘者’라 하여도 큰 문제가 없으나 杏雨書屋本の 형태(上)로 볼 때 ‘貫’이 분명하다.

⑨「卷27·邪傳」楊注 ‘多生喜怒’<sup>42)</sup>



楊注 ‘陰邪出之於陽, 陽動故多生喜怒.’에 쓰인 ‘生’이 盛文堂本과 『新校正』에는 ‘主’로 되어있다. 杏雨書屋本の 글자(上)를 판별해 봤을 때 ‘生’이 분명하며 이 역시 오리엔트本의 글자(下)가 ‘主’로 되어있는 것에서 발생한 오류이다. 문장 흐름상으로도 ‘陰邪가 陽에서 出하니 陽이 動하므로 흔히 喜怒의 病을 生한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오리엔트本의 낮은 해상도로 인한 오류 事例

杏雨書屋本은 흑백으로 인쇄되었던 오리엔트本과 달리 컬러로 영인되었으며 해상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에 비해 글자를 정확히 판별해낼 수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흑백판본의 경우 筆寫者가 의도적으로 점을 찍은 것과 종이가 손상되어 생긴 흔적을 구분하기 어렵다. 특히 卷27의 경우 仁和寺本의 初校 당시 찍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붉은색의 傍點이 보이는데, 흑백 板本에서는 이것과 글자의 점을 분간할 수 없다. 또한 종이의 상태에 따라 음영이 생겨 식별이 어려울 때도 있다. 杏雨書屋本을 통해 이러한 원인으로 혼동되었던 사례의 다수를 판명할 수 있게 되었다.

38) 杏雨書屋本 21:141 ‘行諸經隧’

39) (杏雨書屋本 21:185), (新新校正 p291), (新校正 p419)

40) (杏雨書屋本 27:104), (新新校正 p403), (新校正 p594)

41) (杏雨書屋本 27:278), (新新校正 p410), (新校正 p604)

42) (杏雨書屋本 27:387), (新新校正 p416), (新校正 p610)

①「卷21·九鍼要道」楊注「欲聞微鍼之情也」<sup>4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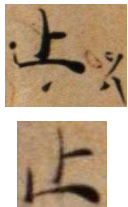
楊注 “爲前五法，必須各立形狀，立前五形之本，須作倣經法，故請先立鍼經，欲聞微鍼之情也。”에 쓰인 ‘微’는 盛文堂本과 『新校正』에 ‘敍’로 되어있다. 이 글자(上)는 손상되어 명확하지 않으나 다른 부분에 쓰인 글자(下44)와 비교해보면 ‘敍’ 보다 ‘微’에 가깝다. 문맥상으로도 ‘微鍼’의 정황을 듣고자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經文<sup>45)</sup>을 해석한 문장으로서 자연스럽다. 따라서 ‘微’로 고치는 것이 옳다.

②「卷21·九鍼要道」楊注「使煖氣內聚」<sup>46)</sup>



楊注 “以手按其所鍼引之，使煖氣內聚，以心持鍼，不令營血得散，外閉其門，令衛氣不得洩出，謂之補也。”에 쓰인 ‘使’는 글자가 일부 손상되어 명확하지 않다. 盛文堂本에는 ‘後’, 『新校正』에는 ‘候’로 되어있는데 남아있는 형태(上)는 ‘使’에 가깝다. 이 註釋은 經文 ‘按而引鍼，是爲內溫，血不得散，氣不得出’을 설명한 것으로 의미상 ‘使’와 ‘候’는 가능하나 ‘後’는 어색하다. 또한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하여서(以) ~하게한다(令)’와 같은 형식이 반복되는데,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候’보다는 ‘使’가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③「卷21·九鍼要道」經文「若行若悔，如蚊虻止」<sup>47)</sup>



盛文堂本과 『新校正』에는 ‘上’으로 되어있으나 의미상 ‘止’가 분명하며 『新校正』역시 ‘止’의 오류라고 註釋하였다. 그러나 杏雨書屋本(上)을 살펴보면 같은 부분 楊注에 보이는 ‘止’(下)와 상당히 유사하며 좌측에 세로획의 흔적이 남아 있는 듯하다. 또한 이 부분의 楊注와 《靈樞·九鍼十二原》<sup>48)</sup>에도 모두 ‘止’로 되어있으므로 ‘止’로 보는 것이 옳다.

43) (杏雨書屋本 21:20), (新新校正 p283), (新校正 p409)  
 44) 杏雨書屋本 21:11 ‘以微鍼通其經脈’  
 45) “余欲勿令被毒藥，無用砭石，欲以微鍼，通其經脈……異其篇章，別其表裏，爲之終始。令各有形，先立鍼經，願聞其情。”  
 46) (杏雨書屋本 21:40), (新新校正 p284), (新校正 p411)  
 47) (杏雨書屋本 21:43), (新新校正 p284), (新校正 p411)  
 4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1.

④「卷21·九鍼要道」楊注「得氣已去，卽補口，口補足口，卽疾出鍼」<sup>49)</sup>



이 부분은 손상이 심해 명확하지 않다. 盛文堂本은 ‘得氣已去卽此補陰口補得之也’, 『新校正』은 ‘得氣已多，卽與補洩，行補洩已’, 『新新校正』은 ‘得氣已去，卽行補法，行補足已’로 기록하였다. 문제가 되는 글자를 하나씩 살펴보자면, 네 번째 글자(右4)의 경우 ‘去’에 가까우며 ‘多’로 보기는 어렵다. 여섯 번째 글자(中2)의



경우 盛文堂本의 ‘此’와는 다른 듯하며, 『新校正』에서는 ‘与’라 하였는데 다른 부분 (21:132 ‘察其氣已下与尙存’)에 쓰인 것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다. 이는 ‘行’으로 보는 『新新校正』의 견해가 가장 근접하다. 여덟 번째 글자(中4)는 형태상 ‘法’으로 보인다. 아홉 번째 글자(左1)는 ‘行’에 가까우며, 따라서 여섯 번째 글자와 합이 맞는다. 열한 번째 글자(左3)은 ‘之’ 위에 남은 획으로 볼 때 ‘足’의 俗字이며, 『新校正』이 말한 ‘洩’과는 거리가 멀다. 마지막 글자는 알아볼 수 없으나 이조사(耳)가 들어가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전체적으로 보면 『新新校正』의 의견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문장은 補法을 실시하는 순서를 설명하였으며, “鍼을 놓아 得氣하면 補法을 시행하고 補法을 마치면 發鍼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때 무리가 없다. 다른 부분의 楊注에 “鍼入不得其氣，無由補寫，故轉鍼以待氣，不問其數也。得氣行補寫已，即便出鍼。”(113:69)이라 한 것과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다.

49) (杏雨書屋本 21:45), (新新校正 p284), (新校正 p411)

⑤「卷21·九鍼要道」楊注「毛其端銳微也」<sup>5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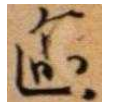
『新校正』에서는 ‘銳’이라 하였고, ‘銳’를 의미한다고 註釋하였다. 그러나 형태상 ‘銳’로 보는 것이 옳다. 盛文堂本, 『新新校正』도 역시 ‘銳’로 되어있다.

⑥「卷21·九鍼要道」楊注「病之邪氣」<sup>51)</sup>



盛文堂本에는 ‘病無邪也’, 『新校正』에는 ‘病之邪之’, 『新新校正』에는 ‘病之邪氣’로 되어있다. 글자가 손상되었기는 하나 남아 있는 형태나 의미상 ‘氣’로 보는 것이 옳다.

⑦「卷21·九鍼要道」楊注「匡, 區方反」<sup>52)</sup>



다른 板本에는 모두 ‘區’로 되어있으나 『新校正』에는 ‘匡’으로 되어있다. 형태상 ‘區’가 확실하다.

⑧「卷21·區鍼要解」楊注「言之甚易, 行之難著」<sup>53)</sup>



盛文堂本에는 ‘者’로 되어있으며 『新校正』에는 空格으로 두고 “‘言’下一字殘甚, 疑爲‘者’字.”라고 註釋하였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쓰인 ‘之’(下<sup>54)</sup>)와 비교할 때 그 형태가 유사하며, 다음 句와의 호응으로 따져 봐도 ‘之’가 옳다.

⑨「卷21·九鍼要解」楊注「上注於肺」<sup>5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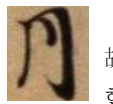
楊注 ‘穀入於胃, 化爲二氣, 清而精者, 上注於肺’에 쓰인 ‘上’은 그 글자가 많이 손상 되어 알아보기 어렵다. 盛文堂本에는 ‘上’으로 되어있으나 『新校正』에는 空格으로 남아있다. 經文에 ‘水穀皆入于胃, 其精氣上注於肺’라 하였으므로 ‘上’이 옳고, 殘劃도 이와 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⑩「卷21·諸原所生」楊注「五志藏神」<sup>5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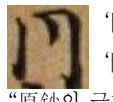


盛文堂本과 『新校正』에는 모두 ‘藏’으로 되어있다. 형태상 ‘藏’과 유사하나 다른 부분에 쓰인 글자(下<sup>57)</sup>)와 비교할 때 ‘穢’에 더 가까워 보인다.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는 앞뒤의 楊注의 구절 ‘客邪入神, 其猶刺也.’, ‘陰陽積聚, 其猶結也’, ‘血氣不流, 其猶閉也’를 보면 앞의 네 글자는 病機를 말하고 뒤의 네 글자는 그것을 비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五志藏神’이라 한다면 이는 生理가 되어 맞지 않다. 이때 ‘五志’는 怒喜思悲恐의 감정이며, 이러한 감정들이 神을 더럽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穢’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⑪「卷27·七邪」楊注「如弟二同等也」<sup>5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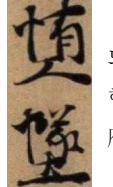


楊注 “‘耶中其精, 則五精不得比和, 別有所見, 故視岐見於兩物, 如弟二同等也’의 ‘二’ 아래



한 글자를 蕭延平本과 『新校正』에서 각각 ‘問’과 ‘月’이라 하였다. 형태(上)로 볼 때 ‘問’과는 거리가 있다. 『新新校正』의 脚注에 “原鈔의 글자는 卷末의 識語에 자주보이는 ‘同本’에서의 ‘同’(下)과 같다.”<sup>59)</sup>라 하였는데 실제 살펴보니 따를 만하다. 이는 물체가 둘로 보이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月’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新校正』에서도 ‘月’이 ‘目’의 誤字일 것이라 하였으나 종합해볼 때 ‘同’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⑫「卷27·邪中」經文「有所墮墜」<sup>60)</sup>



蕭延平本에는 ‘墜墜’, 『新校正』에는 ‘墮墜’로 되어있다. 의미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나 형태상으로 ‘墮墜’가 옳다. 《靈樞·邪氣藏府病形》에는 ‘墮墜’로 되어있다.<sup>61)</sup>

50) (杏雨書屋本 21:51), (新新校正 p285), (新校正 p412)  
51) (杏雨書屋本 21:52), (新新校正 p285), (新校正 p412)  
52) (杏雨書屋本 21:65), (新新校正 p286), (新校正 p412)  
53) (杏雨書屋本 21:91), (新新校正 p287), (新校正 p414)  
54) 杏雨書屋本 21:91 ‘行之難著’  
55) (杏雨書屋本 21:141), (新新校正 p289), (新校正 p416)

56) (杏雨書屋本 21:204), (新新校正 p292), (新校正 p420)  
57) 杏雨書屋本 21:252 ‘穢, 詛穢反.’  
58) (杏雨書屋本 27:24), (新新校正 p400), (新校正 p589)  
59) “原鈔の文字は卷末の識語中にしばしば見える‘同本’の‘同’と同じ.”  
60) (杏雨書屋本 27:265), (新新校正 p410), (新校正 p603)  
6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6.

⑬「卷27·邪中」經文「天寒則裂地凌水」<sup>62)</sup>



蕭延平本에는 ‘地裂凌水’, 『新校正』에는 ‘地裂凌冰’, 『新新校正』과 杏雨書屋 翻字本에는 ‘裂地凌水’로 되어있다. 형태상으로는 ‘裂地凌水’에 가깝다. ‘凌’은 ‘얼음’을 뜻하며, ‘凌’은 ‘오른다’는 뜻이다. 따라서 의미상으로는 ‘땅을 갈라지게 하고 물을 (혹은 얼음을) 얼게 한다.’ 즉, ‘裂地凌水(氷)’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凌’과 ‘凌’은 통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靈樞·邪氣藏府病形》에는 ‘裂地凌冰’으로 되어있다.<sup>63)</sup>

⑭「卷27·邪傳」楊注「陰氣既盛」<sup>6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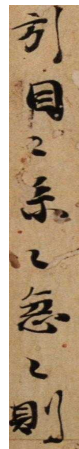
나머지 板本 모두 ‘既’로 되어있으나 『新校正』에만 ‘卽’으로 되어있다. 형태상으로는 ‘既’가 분명하며, 楊注(“人之卒然外中於寒, 以入於內, 內傷憂怒, 以應於外, 內外相搏, 厥氣逆上, 陰氣既盛, 遂令六府陽經六輸……”)의 흐름으로 보아 ‘厥氣가 上逆했을 때 이미 外寒이 盛했다’는 의미이므로 역시 ‘既’가 적합하다.

3) 그 외 『新校正』의 오류

대조과정 중에는 위에서 언급한 분류 외에도 『新校正』의 오류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발견되었다. 이는 杏雨書屋本과 오리엔트本의 글자형태가 같고 오리엔트本의 글자가 충분히 식별 가능한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는 『新校正』의 단순 오류로 생각되는 것과 『新校正』이 蕭延平本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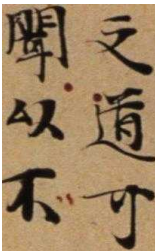
①「卷27·七邪」經文「腦轉則引目系急則目眩」<sup>65)</sup>

蕭延平本과 『新校正』에는 ‘則引目系, 目系急, 急則目眩’, 『新新校正』과 杏雨書屋 翻字本에는 ‘則引目系急, 目系急, 則目眩’으로 되어있다. 杏雨書屋本과 오리엔트本에 보이는 글자들의 형태와 배열은 일치한다. ‘A則 B, B則C’라는 문장 형식으로 볼 때 앞뒤의 B가 같은



구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는 ‘目系急, 目系急’으로 풀어내는 것이 옳다. 蕭延平本과 『新校正』의 글자 배열은 일관성이 없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蕭延平本의 경우는 사용한 底本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新校正』은 蕭延平本을 따른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②「卷27·邪客」의 楊注 “……斯爲知者, 先驗於身, 故能爲人發蒙於耳目, 解惑於心府, 如此之道, 可聞以不.”<sup>66)</sup>



이 경우 杏雨書屋本과 오리엔트本에 보이는 형태는 서로 같다. 그러나 蕭延平本과 『新校正』에는 모두 ‘可以聞不’로 되어있으며 이에 대해 주석을 남기지 않았다. 經文 끝에 쓰인 ‘可得聞乎’와 대비해볼 때, ‘可以聞不’이 상대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며 ‘이와 같은 도리를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蕭延平本이 의미가 통하도록 바꾼 것을 『新校正』이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③「卷27·邪中」楊注「陰之邪中於臂胛」<sup>67)</sup>



杏雨書屋本과 오리엔트本 모두 ‘中’ 아래에 ‘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蕭延平本과 『新校正』에는 이 글자가 기록되어있지 않으며, 註釋하지 않았다. 蕭延平本의 底本에는 글자가 빠져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新校正』이 이를 따르면서 발생한 오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④「卷27·邪傳」楊注「此爲生積所由也」<sup>68)</sup>



형태상 ‘爲’가 분명하나 蕭延平本과 『新校正』에는 ‘則’으로 기록되어있으며 이에 대한 언급도 없다. 이 역시 『新校正』이 蕭延平本을 그대로 따르면서 발생한 오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62) (杏雨書屋本 27:273), (新新校正 p410), (新校正 p603)  
6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7.  
64) (杏雨書屋本 27:373), (新新校正 p415), (新校正 p610)  
65) (杏雨書屋本 27:21), (新新校正 p400), (新校正 p589)

66) (杏雨書屋本 27:182), (新新校正 p406), (新校正 p598)  
67) (杏雨書屋本 27:261), (新新校正 p410), (新校正 p603)  
68) (杏雨書屋本 27:369), (新新校正 p415), (新校正 p609)

⑤ 「卷27·邪傳」 經文 ‘病喜怒’<sup>69)</sup>



蕭延平本과 『新校正』에는 ‘善’으로 되어 있고 註釋은 없다. 형태상 분명할 뿐 아니라 楊注에 ‘陰邪出之於陽，陽動故多生喜怒也.’라 하였으므로 ‘喜’가 확실하다. 《素問·宣明五氣》에는 ‘陰出之於陽則怒’<sup>70)</sup>로 되어있다.

다음은 『新校正』의 단순 오류로 결과만 간단히 기록하였다. 형태와 의미가 분명한 것을 『新校正』이 잘못 기록한 경우이다.

⑥ 「卷27·十二邪」 楊注 ‘俱入於胃’

(杏27:100 ‘胃’), (新新p403 ‘胃’), (新p593 ‘腎’), (蕭 ‘胃’)

⑦ 「卷21·九鍼要解」 楊注 ‘陰尺動脈動於五里’(杏21:156 ‘里’), (新新p290 ‘里’), (新p417 ‘裏’), (成文 ‘里’)

⑧ 「卷27·邪客」 經文 ‘所謂明矣’

(杏27:177 ‘矣’), (新新p406 ‘矣’), (新p598 ‘也’), (蕭 ‘矣’)

⑨ 「卷27·邪傳」 楊注 ‘卽爲頭眩等頭病也’

(杏27:310 ‘頭病也’) : (新新p412 ‘頭病也’), (新p606 ‘病也’), (蕭 ‘頭病也’)

⑩ 「卷27·邪傳」 楊注 ‘邪著成積’

(杏27:332 ‘邪著成積’), (新新p413 ‘邪著成積’), (新p607 ‘邪氣著成積’), (蕭 ‘邪著成積’)

⑪ 「卷27·邪傳」 經文 ‘臂手孫絡之居也’

(杏27:337 ‘臂’), (新新p413 ‘臂’), (新p607 ‘擘’), (蕭 ‘臂’)

4) 杏雨書屋本の 오류

대조과정에는 杏雨書屋本이 가지고 있는 오류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중 눈여겨 봐야할 것은 仁和寺本 자체의 오류로 추측되는 것이다. 杏雨書屋本을 통해 이전 교감본들이 잘못 기록한 것을 밝혔으나 실제 의미상으로는 오히려 적합지 않는 경우이다. 진후 문맥, 經文과 楊注의 호응, 혹은 『素問』이나 『靈樞』의

69) (杏雨書屋本 27:385), (新新校正 p416), (新校正 p610)  
7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92.

문장을 고려해 고찰하였다. 이는 仁和寺本 형성 당시의 실수일 수도 있고 멀리는 그 이전 판본부터 존재한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러한 오류들은 차후 『太素』를 통한 교감과정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① 「卷21·九鍼要道」 經文 ‘刺之而氣不之，無問甚數’<sup>71)</sup>



盛文堂本, 『新校正』, 『新新校正』, 杏雨書屋本 모두에 ‘甚’으로 되어있다. 형태상 ‘甚’이 분명하나 의미상으로는 ‘其’로 보는 것이 옳다. 『靈樞·九鍼十二原』에는 ‘其’로 되어있다.<sup>72)</sup>

② 「卷21·九鍼要解」의 經文 ‘皮肉筋脈，各有所處，言經絡各有所生也.’<sup>7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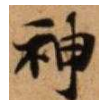
杏雨書屋本の 글자는 분명 ‘生’이며 盛文堂本, 『新新校正』도 그와 같다. 그러나 의미상 ‘主’로 봄이 타당하니, 經絡은 主하는 바가 있을 뿐 그것을 生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言經在皮肉，絡在皮膚也.”라고 한 楊上善의 설명과도 일치한다. 『靈樞·小鍼解』에도 역시 ‘主’로 되어있다.<sup>74)</sup>

③ 「卷27·七邪」 楊注 ‘果氣白眼及血之赤眼’<sup>75)</sup>



蕭延平本은 ‘脉’, 『新校正』은 ‘脈’, 『新新校正』은 ‘眼(脈)’(眼으로 되어있으나 脈으로 바꾸어야 함)으로 되어있다. 형태상으로는 ‘眼’이 분명하다. 그러나 經文에 ‘白眼赤脉法於陽’이라 하였으며, ‘血之赤眼’은 의미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脈’의 誤字로 볼 수 있다.

④ 「卷27·七邪」 楊注 ‘心者，神之用，神者，神之主也’<sup>76)</sup>



蕭延平本과 『新校正』은 ‘心’, 『新新校正』은 ‘神(心)’(神으로 되어있으나 心으로 바꾸어야 함)으로 되어있다. 형태상으로는 ‘神’이 분명하나 문맥상 ‘心’의 誤字이다.

⑤ 「卷27·十二邪」 楊注 ‘以灌目之，五眼之精，潤於七竅’<sup>77)</sup>

71) (杏雨書屋本 21:66), (新新校正 p286), (新校正 p413)  
7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2.  
73) (杏雨書屋本 21:150), (新新校正 p289), (新校正 p417)  
7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3.  
75) (杏雨書屋本 27:30), (新新校正 p400), (新校正 p589)  
76) (杏雨書屋本 27:33), (新新校正 p400), (新校正 p590)  
77) (杏雨書屋本 27:132), (新新校正 p404), (新校正 p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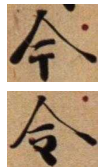
蕭延平本과 『新校正』은 ‘穀’, 『新新校正』과 杏雨書屋本은 ‘眼’으로 되어있다. 형태상으로는 ‘眼’이 분명하다. 그러나 ‘五眼之精’의 의미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五穀의 液 중 精微한 것이 七竅로 흘러든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⑥ 「卷27·十二邪」 經文 ‘故大息以申出’<sup>78)</sup>



盛文堂本과 杏雨書屋 翻字本은 ‘申’으로 되어있으며, 『新校正』에는 ‘中’, 『新新校正』에는 ‘中(申)’(中으로 되어있으나 申으로 고쳐야 함)으로 되어있다. 楊注에 ‘故大息取氣以申出之’라 하였으므로 ‘申’의 誤字가 분명하다. 《靈樞·口問》에는 ‘故太息以申出之’라 하였다.<sup>79)</sup>

⑦ 「卷27·邪客」 經文 ‘今驗於已如發蒙解惑’<sup>80)</sup>



經文“今余問於夫子，令可驗於已，令之可言而知也，視而可見，捫而可得，今驗於已如發蒙解惑，可得聞乎。”에 쓰인 ‘驗’ 위의 글자가 蕭延平本과 『新校正』에는 ‘令’, 『新新校正』과 杏雨書屋本에는 ‘今’으로 되어 있다. 글자의 형태로 판단할 때는 ‘今’에 가깝다. 다른 부분에 쓰인 ‘令’(下81)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장에 반복되는 형식이나 내용을 볼 때 ‘令’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생각된다. 《素問·舉痛論》에는 ‘令’으로 되어있는데<sup>82)</sup>, 『太素』와는 문장 구조가 차이가 있어 단정할 수는 없다. 『太素』의 앞뒤 문장이 매끄럽지 않은 것으로 보아 筆寫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⑧ 「卷27·邪中」 楊注 ‘三陽之經絡脉別走入於三陽’<sup>83)</sup>



楊注 ‘三陽之經絡脉別走入於三陽，三陽之經絡脉別走入於三陰’의 두 번째 글자를 蕭延平本과 『新校正』은 ‘陰’, 『新新校正』은 ‘陽(陰)’

(陽으로 되어있으나 陰으로 바꾸어야 함), 杏雨書屋本은 ‘陽’으로 기록했다. 형태상으로는 ‘陽’이 확실하나 ‘陰’의 오류가 분명하다.

5) 杏雨書屋本 翻字本の 오류

연구과정에서는 杏雨書屋本 翻字本 제작의 오류도 발견할 수 있었다. 단순 오류로 보이며 간단히 기록하였다.

① 「卷21·九鍼要道」 經文 ‘刺之而氣至’ (杏21:66)

影印本에 따르면 ‘而’가 없어야 한다.

② 「卷21·諸原所生」 經文 ‘如以手探湯’ (杏21:211)

影印本에 따르면 ‘以’가 없어야 한다. 『新新校正』에도 ‘以’가 있어 이를 따른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靈樞·九鍼十二原』에는 ‘以’가 있다.<sup>84)</sup>

③ 「卷21·九鍼所象」 經文 ‘必令其末如’ (杏21:244)

影印本에 따르면 ‘其’가 없어야 한다. 『新新校正』에도 ‘其’가 있어 이를 따른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靈樞·九鍼論』에는 ‘其’가 있다.<sup>85)</sup>

④ 「卷27·十二邪」 楊注 ‘驚怒’ (杏27: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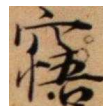
影印本에는 ‘恐’으로 되어있다.

⑤ 「卷27·十二邪」 楊注 ‘厥陰之氣’ (杏27:150)

影印本에는 ‘逆’으로 되어있다.

6) 기타

① 「卷21·九鍼所象」 經文 ‘余猶不能寤’<sup>86)</sup>



盛文堂本, 『新校正』, 『新新校正』에 모두 ‘寤’로 되어있고 杏雨書屋本에만 ‘寤’로 되어 있다. 형태상으로는 ‘寤’가 맞으나 의미상 ‘깨다’의 뜻을 가져야 한다. 통용했던 글자이거나 필사 과정의 오류로 생각된다.

78) (杏雨書屋本 27:136), (新新校正 p405), (新校正 p595)

7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59.

80) (杏雨書屋本 27:179), (新新校正 p406), (新校正 p598)

81) 杏雨書屋本 27:178 ‘令可驗於已’

8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35. “今余問於夫子，令言而知，視而可見，捫而可得，令驗於已，而發蒙解惑，可得而聞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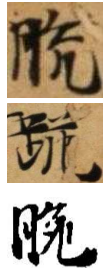
83) (杏雨書屋本 27:243), (新新校正 p409), (新校正 p602)

8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3.

8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31.

86) (杏雨書屋本 21:221), (新新校正 p293), (新校正 p421)

② 「卷27·七邪」 楊注 ‘眩，有爲脫，量誤也’<sup>87)</sup>



蕭延平本과 『新校正』에는 ‘眩’로 되어있는데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글자(上)의 형태만으로는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左邊은 ‘月’이 분명하나, 杏雨書屋本의 다른 곳에 쓰인 ‘眩’(中<sup>88)</sup>)와 비교할 때 右邊이 ‘危’라고 보기는 어렵다. ‘眩’의 경우는 杏雨書屋本 내에는 쓰인 경우가 없어 오리엔트本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眩’(下<sup>89)</sup>) 역시 일치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내용상 잘못 쓰인 경우를 언급한 것이라 뜻을 기준으로도 결정하기 어렵다.

③ 「卷27·十二邪」 ‘閑居，宴也.’<sup>90)</sup>



蕭延平本과 『新校正』에는 ‘宴’으로 되어 있고, 『新新校正』에는 ‘宴’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글자의 형태는 이 둘과 모두 다르다. 杏雨書屋 翻字本에는 이 글자가 ‘宴’의 異體字라 하였다. ‘閑居’를 설명한 字意로는 ‘宴’이 조금 가깝지 않은가 생각한다.

### III. 結 論

『黃帝內經太素』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통해 발견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形成時期, 底本, 日本으로의 流入過程 등이 명확하지 않아 여러 의견이 존재하며 특히 仁和寺本이 시차를 두고 발견됨에 따라 그 때마다 새로운 校勘을 필요로 하였다. 그 결과 通隱唐本, 蕭延平本, 盛文堂本, 『黃帝內經太素新校正』, 『黃帝內經太素新新校正』과 같은 校勘書들이 순차적으로 발간되었는데, 각각은 그만의 장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校勘書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적인 한계는 底本으로, 초기 通隱唐本부터 盛文堂本까지는 筆寫本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1981년 오리엔트本의 출간으로 仁和寺本의 眞本을 볼 수 있게 되자 연구는 새 국면을 맞았으며 많은 문제들이 개선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출간된 『黃帝內經太素新校正』은 현재까지 발표된 가장 정밀한 校勘本으로 기타 연구에 底本으로 삼을 만하다. 그러나 오리엔트本 역시 卷21과 卷27이 模寫本으로 알려졌으며 眞本을 통해 수정할 여지가 남아있었다. 최근 日本에서 발간된 杏雨書屋本은 仁和寺本 卷21과 卷27의 眞本으로 앞선 판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미 교감을 시도한 선행연구가 있었으나 아쉬운 점이 있어 杏雨書屋本과 이전의 校勘書들을 전면 대조하였다. 그 결과 발견한 차이의 대부분은 작은 것이었지만 의미상의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들도 몇몇 있었다. 총 60여 건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를 몇 가지 類型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오류 사례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校勘本이 模寫本을 底本으로 사용해 발생한 오류이다. 模寫過程의 오류로 발견된 9건은 마땅히 眞本을 따라 교정해야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해상도가 낮은 오리엔트本에서 찾을 수 없던 것들을 판별해낼 수 있게 된 경우도 있었다. 이 외에도 『新校正』과 杏雨書屋本에는 크고 작은 오류들이 있는데, 특히 仁和寺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류들은 卷21, 卷27 뿐 아니라 『太素』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杏雨書屋本의 影印으로 이제 仁和寺本 모두를 眞本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卷21과 卷27의 校勘이 반영되면, 유실된 다섯 권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仁和寺本에 대한 글자 교감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의학의 입장에서 본 『太素』의 가치는 그 자체보다 『黃帝內經』의 원형을 복원하고 본의를 이해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太素』연구는 아직 미진하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연구는 사실관계의 확인보다 의미론적 해석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87) (杏雨書屋本 27:12), (新新校正 p399), (新校正 p588)

88) 杏雨書屋本 27:10 ‘被髮長跪眩’

89) 오리엔트本 《卷二·六氣》 ‘岐伯曰精脫者，耳聾’

90) (杏雨書屋本 27:81), (新新校正 p402), (新校正 p592)



#### IV. 參考文獻

1. 錢超塵. 黃帝內經太素研究.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2. 馬繼興. 中醫文獻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3. 朴贊國主編. 懸吐黃帝內經講義.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8.
4. 錢超塵, 李雲.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5. 左合昌美校正. 黃帝內經太素新新校正. 日本內經醫學會. 2010.
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8. 左合昌美, 金恩瑕. 杏雨書屋藏古卷子本『太素』卷二十一 및 卷二十七의 繁字.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1(4). 2008.
9. 李容範. 楊上善의 三陰三陽 學說에 對한 研究.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10. 李容範. 『태소(太素), 경맥병해(經脈病解)』에 對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4). 2007.
11. 趙學俊, 尹暢烈. 《內經》의 歷代 註釋家와 註釋 書에 關한 研究(I).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7(2). 1999
12. 李相協. 『黃帝內經太素』의 特徵 및 楊上善의 醫學 理論에 對한 研究. 동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